

# 지난달 평균 최고기온 '역대 2위'

지난달에는 평년보다 덥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다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는 제주도는 평년과 비슷하게, 중부와 남부 지방은 1~3일 늦게 시작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기상청이 발표한 6월 기상특성에 따르면 이동성 고기압과 강한 일사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평균기온은 22.2도로 평년(20.9~21.5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1973년 이래 6월 기온으로는 5위에 해당한다.

평균 최고기온도 27.8도로 평년(26.5도)보다 높았다. 이는 1973년 이래 6월 최고 기온으로는 2위에 해당된다.

조반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햇빛이 강했으며, 후반에는 20일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고 26일 이후에는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남서기류가 강화되면서 기온이 높았다.

반면 중반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자주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9~16일에는 동시베리아 고위도 지역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고 오호츠크해~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층 기압골이 발달했다"라며 "이로 인해 동서흐름이 느껴져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하층에서는 고기압이 동해상에 위치해 동풍기류가 자주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전반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나 후반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강수량은 평년(130.3mm~186.0mm)과 비슷한 132.1m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19일,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는 26일부터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장마는 평년(6월19일~20일)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부는 평년(6월23일)보다 3일 늦게, 중부는 평년(24~25일) 대비 1일 늦게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5일과 10~11일, 19일에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지방에 비가 내렸으나 지역차가 크고 강수량은 적은 편이었다.

9~10일, 14~15일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지방에 비가 내렸으나 지역차가 크고 강수량은 적은 편이었다.

또 9~16일 사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기류가 유입,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자주 왔다.

11~13일에는 상층에 찬 공기가

6월 평균 기온 22.2도...1973년 이후 5위 수준

제주 19일 장마...중·남부 평년보다 늦게 시작

위지해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륙을 중심으로 내렸으나 강

수량은 적은 편이었다. 지난달 1시간 최대 강수량이 많

았던 곳은 26일 동두천38mm·서산 60mm, 28일 거제 48mm, 29일 광주 44.3mm 등이었다. 일일 강수량이 많았던 곳은 26일 동두천 118.4mm, 27일 고창군 122mm, 28일 거제 201.5mm, 30일 성산 181mm 등으로 집계됐다.

뉴스



장맛비로 주저앉은 화물차 대전과 충남지역에 밤새 많은 비가 내린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한 도로가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화물트럭 앞바퀴가 빠져 있다.

## 국군 기무사 세월호 참사 조직적 관여 문건 발견

군 사이버 댓글TF...예비역 사이버 전사 운용 등 찾아내

"국방부검찰단에 내용 이첩...위법사항 여부 확인 예정"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됐다. 기무사가 사고 당시 팽목항 구조현장뿐만 아니라 단원고에서도 기무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 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TF는 설명했다.

댓글사건 조사TF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였던 지난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상상황 파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5월13일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 운영해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했다.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가족 지원, 탐색 구조·인양, 불순세력관리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또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탐색 구조와 선체인양 등 군(軍)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 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조사TF는 전했다.

문건별로 살펴보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은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 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은 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 및 방안이 서술돼 있었다.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문건은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돼 일일 보고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기무사가 보수단체들이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소위 '좌파집회'(시민단체 집회 등)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응해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조사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확인 예정"이라며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활동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 이라크, 시리아 국경에 600km 장벽 세운다

이라크가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600km에 달하는 시리아 접경에 장벽을 세우기로 했다.

이라크 안바르 지역의 안와르 하미드 나예프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열흘 전부터 시리아 접경에 보안 철창과 감시탑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동부는 600km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국경 인근 알 카담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km 가량의 보안 철창을 설치한 상태다.

시리아 접경에는 철창으로 된 장벽과 함께 6m 크기의 참호, 열감시 카메라, 드론(무인 항공기) 등이 설치돼 IS 조직원들의 접근 시도를 차단한다.

나예프 대변인은 이라크 국방부와 미국 주도 연합군 측 전문가들이 방문해 철창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설치를 용인하면 시리아 접경 전체를 따라 펜스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미군 주도 연합군 도움을 받아 IS 격퇴 작전을 진행했고 작년 12월 IS로부터 완전 해방을 선언했다. IS 전투원 일부는 아직 이라크 외곽과 시리아에 남아 산발적인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이라크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지난달 27일 수도 바그다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IS에 피랍된 이들의 시신 8구가 발견되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IS 대원 12명을 즉각 처형했다.

## 美 경찰, 트럼프 모양 마약 제조판매 일당 검거

마약 밀매조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형상과 그의 구호까지 불법 마약 정제의 제조와 판매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인디애나주 경찰은 주 북부에서 최근 체포한 129건의 마약 사범 등 마약조직에 대한 단속 뉴스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형상(Trump Shaped)"의 엑스터시 알약들을 압수했다고 인디애나주 경찰소식지에서 밝혔다.

오렌지 색의 이 알약들에는 트럼프의 얼굴이 찍혀 있고 뒷 면에는 "다시 위대하게(great again)"란 단어가 새겨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밀매범들은 가끔 독특한 디자인이나 색깔의 마약들을 만들어 판다. 이는 고객들이 다시 찾도록 만들기 위한 판매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6월29일 공개된 경찰이 압수한 이 마약류 관련 뉴스에는 얼마나 많은 갯수가 압수되었는지 등 기타 상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디애나주 경찰은 6월중 8일 동안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실시했으며 여기엔 주 경찰과 각 도시의 시경, 지방 보안관 사무실이 총출동해서 길거리 검문 검색에 참가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LSD, 코카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라고 경찰은 말했다.

## 이란 남서부 물부족 시위서 4명 사망 의혹

1일(현지시간) 이란 남서부에서 벌어진 물부족 사태 항의 시위에서 최대 4명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란 정부는 부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라흐마니 파즐리 이란 내무장관은 남서부 호람사르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대 4명이 숨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즐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가짜"라며 충격이 일어나 한 명이 다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람사르에서는 정부의 관리 소홀로 가뭄이 악화돼 식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해졌다고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일부 시위대가 공공 기물을 파손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도 해산을 시도했다.

AFP통신은 이란 정부 관료들마다 부상자 수를 다르게 집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세인 졸파거리 내무 부장관은 신원이 불분명한 자가 발표해 11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졸파거리 부장관은 부상자 가운데 10명은 보안대원들이라며, 일반인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지난 사흘 사이 호람사르와 인근 아바단에서 수질오염에 항의하는 시위가 여러 번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서도 전달 말부터 시위가 잇달고 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의회 앞에서는 지난달 25일 경기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고 미국이 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이미 위태로웠던 이란 경제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